

Radical Disciple II.

말씀은 해석이 아니라 적용을 해야 능력이 됩니다.

1. 래디컬 디사이플 (진짜 제자)

이 시대 '래디컬'의 의미는 행위적인 과격함이 아니라고 했다. 래디컬은 이 시대 풍조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말한다. 엄밀히 말하면 '래디컬'은 '진짜'의 의미이다.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자들이다.

진리, 즉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다. 진리에 대한 인정은 간단하다. '진짜 Real'로 인정되는 것이다. 허구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시대 진리로 여겨지는 것은 넘쳐난다. 문제는 '진짜'가 없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짜(리얼)'로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을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다. 문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질문이다. 진짜에 대한 확인이 내 신앙의 현주소가 되기 때문이다. 믿음은 현재 내 신앙의 현주소를 말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이 보이는 영역안에 현실이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안에 '실재'가 되는 것이다.

그 증거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다. 그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안에 '실재'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한다.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실재가 되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다. 그 분에 대한 증거는 넘쳐난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실재가 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임했다.

예수님은 오늘 나의 고통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통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진짜'이다. 왜냐하면 실재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2. 이 시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리얼'이라는 단어이다.

'페이크 뉴스(가짜뉴스)', '팩폭(팩트폭행)' 이라는 신조어가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다. 예전에는 없었던 단어들이다. 왜 이런 단어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이성과, 과학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부각되는지 질문해야 한다. 인간 이성의 기초가 되는 헬라철학이 구했던 핵심은 무엇인가? '진리'이다.

[고린도전서 1: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성에 근거한 헬라철학은 지혜(진리)를 구한다.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예측하는 힘이 지혜이다. 논리가 중요하고, 그것이 논거가 되어 증명되어야 한다. 그래서 분석이 중요시 되는 과학과 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왜 그런가?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빠른변화를 검증할 수 없기에 '불안하다'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미래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말한다.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살기는 사는데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과 내일에 대한 질문이 멈추지 않는다. 불안함이 오늘 내 실존을 두렵게 한다.

그래서 진리가 필요하다. 내 마음에 확신을 줄 검증된 '진리'가 필요하다. 통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더 노력한다. 더 분석한다. 그것을 데이터로 모아 '대세라는 진리'를 만든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가 여러개이다. 이제 진리 중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누가 말하면 진짜가 되고, 누가 말하면 가짜가 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누가 답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화두가 되는 말이 '팩트체크' 라는 것이다. '사실을 검증'해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팩트' 자체도 조작이 되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3. '리얼'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소신'이다.

증명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 시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어떻게 확신과 소신을 지니고 증명하느냐의 시대이다. 객관적인 정보는 이제 더 이상 객관적일 수 없다. 왜? '페이크'의 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소신'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믿음은 '소신'의 문제이다. 소신은 '굳게 믿거나 생각하는 바'를 말한다. 어떤 임금에게 누가 충신이겠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임금에 대해 '굳게 믿거나 생각하는 바'가 어떤 외부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진리가 없어서, 진리에 대한 분석이 없어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가? 아니다. 세상 풍류속에서 내가 진리로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소신'이 없기 때문이다. 소신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분명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향유옥합'을 깰 수 있다.

복음은 '소신'의 문제이다.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구원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사탄의 참소함에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을 보라. 사탄의 시험에 말려들지 않으셨다.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 말려들지 않으셨다.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소신과 확신이 결국 영적 승리의 실체가 되었다.

4. 진짜 제자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오늘 본문을 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의 실재를 경험하게 하신다.

[누가복음 9:1-2]

- 1 예수께서 그 열둘을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 2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 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예수님의 훈련을 보라.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2절).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을 보라. '내보내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분석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성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다. 진리는 분석이 아니다. 깨달음이 아니다. 예수는 분석과 깨달음으로 알 수 없다. 진리는 경험하는 것이다.

광야가 왜 중요한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노예정신에 묶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에 대한 훈련인 것이다. 현장에 가보아야 '소신'을 가질 수 있다. 사역의 성과가 문제가 아니다. 경험하게 해야 한다.

간증을 많이 듣는다. 문제는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한다. 간증이 일반화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도전과 경험은 그 사람을 성장 시킨다.

[누가복음 9:6]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현장'에서 배웠다. 해보아야 한다. 그래야 소신이 생긴다. 진리를 인터넷과 SNS로 전해지는 정보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미래 아이들은 글을 읽지 않는 세대이다. 깨어 있어야 한다. 현장을 가르쳐야 한다. 진리를 인식하는 고통의 과정을 배워야 한다.

5. 명심하라. '현장의 감각'을 잃으면 끝이다.

현장감이 있어야 한다. 현장감이 현실이고, 그것이 내 삶에 리얼이 된다. 이제 해석과 분석을 멈춰라. 그리고 나아가서 경험하라. 바울은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 리얼을 붙잡으라.